

특별기획

익산 들녘경영체 연계사업 탄력

산·학·관 상생협력 협약 체결... 2017년까지 시범사업 실시

군산항 3월말까지 물동량 4,662천톤 전년 동기대비 4% ↑

군산항 전체 물동량이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남광률)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물동량은 4,662천톤으로 '15년 동기대비 4%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화물 중 수출은 전년 대비 5% 감소한 834천톤, 수입은 14% 증가한 3,042천톤으로 수출입 화물은 전년 대비 9% 증가했으며 연안화물(유류, 모래, 시멘트 등)은 786천톤으로 15% 감소했다.

또 주요 수입화물인 사료원료는 3월말 현재 1,238천톤으로 옥수수 가격인하 등에 따라 17% 증가했으며, 컨테이너는 항로 연장 및 선박 대형화 등으로 3월말 현재 10,690TEU로 전년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소방서,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

익산소방서(서장 강원석)는 20일 남해소방서 미조의용소방대 40명을 초청 지역간 화합을 다짐하는 '제15회 영호남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가졌다.

익산소방서와 남해소방서 의용소방대 교류행사는 2002년 영호남 우호 증진과 의용소방대 수법활동 교류를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통해 시작된 것으로, 매년 상호 방문하여 정을 이어오고 있다.

남해미조의용소방대 권형석 대장은 "뜨겁게 환영해주는 익산의용소방대 여러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고, 익산남성미조의용소방대 전현식 대장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방재의 기초조직인 의용소방대 간의 친목도모와 조직 활성화와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다문화센터 통·번역 서비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군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심희숙 교수)가 결혼이민자의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이민자의 입국 초기 상담 및 국적·체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지원 언어는 중국어·베트남어이며 그 외 언어도 타 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며 센터 방문 및 출장 통역으로 서비스를 무상 이용할 수 있다.

통번역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센터(063-443-005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쌀 소비확대와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들녘경영체 연계 사업이 익산에서 처음 추진되는 가운데 20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농·산·학·관 상생협력 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업기술센터와 들녘경영체인 한그루 영농조합법인, 라이스파이, 한국들녘경영체 중앙연합회, 주요곡물 조사료 자급률제고사업단, 농식품 가치연구소장이 참석해 역할수행을 위한 상호협약을 약속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식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 소득의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들녘경영체 연계 쌀 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강원도 철원과 익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익산시는 지역 들녘경영체인 한그루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쌀 가공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계열화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한그루영농조합법인은 춘포면, 금강동, 동산동 일대 100ha에 가공용 벼를 재배하여 쌀 가공을 통한 새로운 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가공공장 신축을 위한 설계와 컨설팅을 착수한 상태이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들녘경영체 지원 사업시행과 행정을 지원하고, 라이스파이는 떡용 냉동쌀가루 생산 기술지도와 판매를 담당한다.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와 주요곡물조사료 자급률제고사업단은 가공용 쌀 생산, 유통 계열화 모델 정책을 제시하고, 농식품가치연구소는 가공용 쌀 생산유통 계열화 실증연구와 계열화 모델개발, 떡용 냉동쌀가루 생산 및 판매관련 종합컨설팅을 담당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가공공장을 신축하고 내년에는 프리믹스 냉동 쌀가루를 생산을 위한 설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쌀가루를 생산,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익산시는 벼 재배면적 17,300여ha로 전국의 2.2%를 차지하며 쌀 생산량과 재배면적에서 전국의 5위를 차지하는 등 쌀 생산 중심 농업도시이다.

들녘경영체는 집단화된 논지 50ha 이상 공동영농 조직을 구성해 목표에서 수확까지 생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영체다.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해 농가소득 증대와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익산에 있는 들녘경영체는 한그루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해 14개소다. /익산=장양원 기자

장비배치, 팀워크 조성 통한 구조능력 향상·개인별 전문역량 제고 등

안전사고 대비 군산해경센터 교육 훈련 강화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방파제 및 연안사고 대비를 위해 해경센터 교육훈련지원반을 연중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그동안 경비함정을 중심으로 해상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하지만 해경센터(육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관계로 방파제 및 연안사고에 대비한 구조능력 향상 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경은 경력과 전문성 갖

춘 훈련반을 꾸리고 ▲3대 연안사고(익수·고립·추락) 대응 ▲구조선, 구조장비 운용 ▲선박위치 발신장치 및 신원조회기, 출·입항 시스템 운용 등 내실 있는 훈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해경은 현지 실정에 맞는 장비배치, 팀워크 조성을 통한 구조능력 향상, 개인별 전문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전북도 해상에서 발생한 3대 연안사고는 14년 4건(익수 1건, 고립 1건, 추락 2건)에 비해 지난해에는 23건(익수 10건, 고립 7건, 추락 6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현재까지 5건(익수 3건, 고립 2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연안사고에 대한 구조 능력의 중요성이 한층 더해지고 있다.

한편, 전북도에는 해안가 안전사고 대비 및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총 4개 해경센터와 13개 출장소가 있으며, 약 100여명의 해양경찰이 근무 중에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대표)강사의 '중학생엄마가 알아야 하는 우리아이 공부 방법' ▲7월 21일 이병훈(트렌드에듀 2016저자)강사의 '나만 몰랐던 진짜 공부이야기' ▲9월 20일 박세훈(유엔미래포럼)강사의 '미래창조 진로설계' ▲11월 23일 이종서(이투스청솔교육평가연구소장)강사의 '2017년 수능분석 및 2018 대학입시전략'이 진행된다.

이번 특강은 학부모·학생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접수 방법은 선착순으로 온라인(www.KCN.TV)과 전화(금강방송 1544-5400), 방문(동아서적) 접수가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부모와 아이, 지역이 함께하는 학부모 특강' 개최

대학전형 유형별 교육기회 제공·자녀와의 소통능력 향상 도모

군산시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대학전형 유형별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와의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와 아이, 지역이 함께하는 학부모를 위한 특강'을 총 5회에 걸쳐 개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17학년도 대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입학전형에서 수시의 비중이 69.9%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군산시는 학부모들이 교육정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 자녀교육의 맥을 잡을 수 있도록 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강좌는 '학부부 종합전형과 2017 대입전형의 이해'라는 주제로 오는 26일 오후 7시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유병화강사(강북비타에듀 평가이사)의 특강과 학부모와의 질의응답시간을 갖는다.

이어 ▲5월 25일 진영웅(키움에듀

익산서 안심 인증 원룸 8호 인증패 부착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지난 19일 관내 강절도동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원룸중 범죄예방시설이 잘 갖춰진 원룸을 대상으로 안심인증 원룸 8호로 선정, 서영주 생활안전과장과 중앙지구대장 및 생활안전협의회장, 남중동자율방범대장, 소경성 공인중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패를 부착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인증패 부착식은 기 추진중인 원룸안심인증제 일환으로 이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원리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인증패 부착의 홍보 효과

국제적 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 마취통증의학과 김연동 교수가 세계적인 권위의 국제 의학 학술지(SCIE)로 해당 분야 상위 5% 이내 저널인 Medicine(인용지수 IF=5.723, 2016년 4월호)에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 교수의 이번 논문은 우리나라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관한 발생 현황과 의료기관, 과목별에 따른 치료 현황 실태를 처음으로 연구, 조사 한 논문으로 Medicine 95(14):e3304에 "Epidemiology of Postherpetic Neuralgia in Korea-An Electronic Population Health Insurance System Based Study"(한국 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역학과 치료 현황-건강보험자료 기반 연구)란 제목으로 게재 되었다.

김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2010년에 비해 2014년 대상포진 후 신경

통 환자는 58%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의료비 역시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려진 바와 달리, 특별한 계절에 관계없이 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져 평소 면역 강화와 권위의 국제 의학 학술지에 게재

통증이 아주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의학과 신경주사치료 등의 적극적 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은 평균 10% 정도로 나타나 효과적인 통증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연동 교수는 "대상포진은 신경의 염증과 손상으로 시작되는 신경계 통증질환이다. 길로 베거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며 일정한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며 "신경에서 시작되는 통증은 대상포진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며 초기부터 통증 치료 전문의의 진료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후유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라"를 사용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의 오랜 피냄새 막힘
-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속속 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씨서라" 실제 설치!

원룸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배수구 막힘을 해결하는 최강의 방법입니다.

배수구 막힘을 예방하는 최강의 방법입니다.

배수구 막힘을 예방하는 최강의 방법입니다.

배수구 막힘을 예방하는 최강의 방법입니다.